

광양평생교육관,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교육 인형극 운영

김성범 작가의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 각색한 창작 인형극 오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1교 1300여명 대상 운영

광양평생교육관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성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자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1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인성교육 인형극'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 섬진강도깨비마을 극단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김성범 작가의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 책을 각색한 창작 인형극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 덕목으로 여겨지는 '배려'의 교훈과 언어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은 극중 인물들이 관중들과 소통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호호', '싱싱', '퍽퍽', '쫄깃쫄깃' 등 리듬감을 줄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미라 관장은 "책을 기반으로 한 이번 공연이 아이들에게 듣는 힘,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교육청, '사랑의 식품꾸러미' 지원



고흥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여름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관내 초·중·고 학생 50명에게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꾸러미를 전달한다.

이번 식품 꾸러미는 여름방학동안 학생들의 결식 및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가정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밥 대용 식품, 김, 간편식 등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학생의 안부와 상담을 통해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맞춤형 후속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흥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 식품꾸러미 지원 외에도 생필품, 의료비, 심리치료비,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등 긴급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학생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정희 교육장은 "이번 사랑의 식품꾸러미 지원 활동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목포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 함께하는 초기 문해력 연찬회' 호응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에 유치원 5세반 및 초등 1학년 초기 문해력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초기 문해력 지도 역량 강화 연찬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찬회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와

유치원 5세반 및 초등 1학년 초기 문해력 연계 교육

병설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석하여 상호 간에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 초기 문해력의 이해 ▲ 유치원 5세반과 초기 문해력 교육 ▲ 초등학교 1학년과 초기 문해력 교육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유치원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성취기준과 초등학교 교과서 및 교실 속 초기 문해력 교육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유치원생의 하루, 유치원 교실에서 실시하는 초기 문해력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갑수 교육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초기 문해력 교육 연찬회를 실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

다"고 소감을 밝히며,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 기본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유치원 선생님은 "유아 및 초등학생의 문해력 발달 과정을 누리과정의 사소통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성취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문해력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초기 문해력 향상을 위해 유초연계교육 TF 협의회를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연계강화

중3 대상, 전남고교학점제 워크북 보급·활용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2023년에 첫 적용되는 현 중3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고교학점제 사전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3년 고교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3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미리 접해볼 수 있도록 워크북을 개발하고 보급에 앞서 7일과 11일 동부권(순천만생태문

화교육원)과 서부권(전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나눠 진로상담교사 및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활용 연수에는 능주고등학교 정선호 교사가 강사로 나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개요, 미리 알아보는 고교 교육과정, 전남 준비상황, 전남고교학점제 미리보기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해 참여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환기자

순천대-전남교육청 '고교교육협력관실' 설치 운영 시작

전남교육청 파견 전문인력 중심으로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기대

국립 순천대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년) 등 고교-대학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교육협력관실'을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교교육협력관실에서는 ▲ 고교학점제 지원 ▲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 초·중등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기타 교육청 중·중등교육 협력사업 지원 등 전라남도교육청과의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입학처 산하에 설치된 고교교육협력관실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이 주력으로 활동하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고교교육협력관실 설치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순천대학교 기획처 주관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교교육협력관실 운영 규정 제정, 조직 역할 및 공간 배정, 맞춤형 사무실 설치 공사 등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일 고교교육협력관실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고교교육협력관실 설치-운영을 통해 고등교육기회, 지역 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역할과 전남교육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